

2018년 10월 24일, 제주시 외도1동 절물마을회관, 이효순 조사.

좌사남(여, 1930년생, 제주시 외도1동)

-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출생, 제주4·3사건으로 고향을 떠나 한림읍 명월리와 한수리에서 살다가 현재는 외도1동 절물마을에서 10여 년째 거주하고 있다.

• 줄거리: 오동국에 장사 갔던 남선비가 노일저대에게 홀려, 싼고 갔던 곡식과 배까지 팔고 눈도 멀어 지내다가 본부인이 찾아왔다. 그러나 노일저대는 본부인을 죽이고 본부인의 행세를 하며 집으로 들어와 자신을 의심하는 일곱 형제를 죽이려고 아픈 척하였다. 사람의 간을 일곱 개 먹어야 낫는다 하여 일곱 형제를 모두 죽이려 했다. 그러나 영리한 막내아들에게 들통이 나서 노일저대는 죽어서 측간의 신이 되었다. 남선비는 주목대신이 되었고, 본부인은 조왕신이 되었으며, 막내아들은 문전신인 문전하르방으로 좌정했다.

[제보자] 옛날에 다 들어났인다. 이것도 헛꿈 길어.

[조사자] 예게. 질어도 굴아줍서.

[제보자] 옛날에 남선비렌 헌 사람이 잇어났어. 남선비엔 헌 사람이 잇어났인다. 부부 간에 나는 것이 아들을 일곱 성제 낳어. 먹을 것이 송년전. 게난 그 남선비보고 부인이, “남 구해당 테우 짓어그네 외국 강 무곡이나 해옵서.”

곡석을 구허영 오랜 허난 조그마한 배를 짓언 무곡 실영 갓인다. 오동나라렌 헌 디 무곡치레 갓인다. 오젠 허당 보난 여자를 만났어. 여자를 만나난 “아이고, 읍서. 바둑이나 뒤 보게.”

허영, 여자가 허난 여자야 아무 때나 남자들 홀리주. 바둑 두멍 혼 말 두 말 헌 것이 살기로 뒤턄 불었어. 빈빈 놀멍 살당 보난 무곡친 거 다 먹어 불고 배도 팔아 불고 살 수가 엇일 거 아니. 살 수가 엇이난 질 어염에 대죽냥 허연 곳 가 막에 집을 지영 이젠 쓸도 엇영 체 빌어당 체죽 썩영 먹게 벌려진 솟 하나 봉가당. 경허영 먹영 살당.

부인은 이제 오카 저제 오카 영 기다려도 남자가 안 오는 거라. 경허영 아들 일곱 성제?라

“남 비어당 조그마허게 테우 짓으라. 너네 아방 찾아보게.”

허연, 아들 일곱 성제가 굴이 올라강 남 비어단 테우를 짓언. 어멍이

“신을 한 베씩 삼으민 일곱 베. 두 베씩 삼으민 열네 베니까 신을 삼으라.”

신을 한 짐 걸머지고 오동나라렌 헌 디 갖어. 하루 해원 걸으민 훈 베 혈고 또 하루 해원 걸으민 훈 베 허난 신을 마지막 신을 때 가당 보난 나룩빚이라. 벼. 그 밭에 새가 막 앓아가난 어떤 아가씨가 앓앙 새를 드렸어.

“요 새야, 저 새야. 너무 옥은 체 말라. 느보다 더 옥은 남선비도 노일저대 흘림에 드난 전배독선 다 망허고 무곡친 거 다 먹영 체죽 단지 옆이 찬 살았저. 저 새.” 새를 드리난,

“아이고, 너 굿새 뭇이엔 골안디?. 너 골은 말 또 골아 보라. 뭇이엔 골안디? 뭇이엔 골안디?”

허난

“나 아무 소리도 안 헛우다.”

“굿샌 니 새 드리는 말 뭇이엔 헛이? 또시 골아 보라. 구슬 주고 땡기 주마.”

허난

“나 저 옛날에 널보단 더 옥은 새보다 더 옥은 남선비도 노일저대 흘림에 드난 전배독선 다 팔아먹고 무곡친 거 다 먹언 질 이염에 체죽단지 옆이 찬 살암덴 헛우다.”

허난

“아이고야, 경헌 사람 어디 살았이니, 어디 살았이니?”

“올로 영 가당 보민 대죽남집이 잇수다.”

경허영 영 가당 보난 대죽나무 집에 그 하르방이 눈 어둡고 검질 소굽에 앓았어. 할망은 체 빌레 가 불고.

“넘어가는 사람 해가 저 가고, 요 문둥이라도 빌영 오늘 밤 살앙 가쿠다.”

허난 하르방이 우리 할망 오민 육헌덴 허명 아니된덴

“아이고, 문둥이라도 빌립서. 난 디 난 사람이 집을 짓영 납니까? 오늘 밤 새영 가쿠다.”

계건 그 검질 트명에라도 앓았이렌

“나 배고프난 밥을 지영 먹어사쿠다.”

“저 솥 열영 보민 우린 체죽만 쭈영 먹었어.”

솥 올앙 보난 체가 대작대작 벌러진 솥디 헛이난 그걸 막 싹쳐된 이디서 쌀 지어간에 밥을 지영 검질 소굽에 앓인 하르방신디 거려 노난

“아이고, 나도 옛날에 큰부인이영 살 때에 이런 밥도 먹어났저마는.”

허명 눈물을 드룩드룩 흘리명, 눈 어두와 부난 이녁 부인인 줄 몰란게.

“아이고, 나 아들 일곱 성제 난 부인이우다. 하르방 좇이레 왓수다.”

“아이고, 어떤 말이라. 어떤 말이라. 아들들신디 가알로구나.”

경허연 출려가난 이제 노일지대가 치마각에 어디 간 체 훈 줌 빌영 오란

“아이고, 체 빌명 죽 췌 멕이당 보난 어디 넘어가는 간나이 찬 앓안 히아까시

했구나.”

“간나이가 아니고 아들 일곱 성제 난 부인이 나 찾으레 완. 아이고, 가사켜.”

허난

“아이고, 게문 나도 형님이로구나. 나도 곶이 가쿠다.”

허난

“아이고, 우리집은 막 가난허고 아긴 한한허고 먹을 거도 엇고 가도 살 수 없다.”

허난

“아이고 나 굴묵이라도 짚엉 얻어먹고, 굴묵이라도 짚어짚 얻어먹엉 살쿠다.”

이젠 큰부인은 불쌍허여 뵈난 돌앙 오는 거라. 오당 보난 큰 물이 잇어. 연못  
이 잇이난

“아이고, 형님 읍서. 등에 물이나 낵 가게.”

허난

“경허게.”

허영

“치메 저고리 벗엉 이 팡 우트레 놔둡서. 굽읍서. 등에 물 놓구다.”

치메 저고리 벗엉 팡 우트레 나뒹 영 굽으난 물 한 줌 지치는 체허단 물더레  
잘락 거밀어 불엇어. 큰부인은 물더레 풍당 빠졌어. 빠정 죽으난 이제 노일저대  
죽은부인은 큰어멍 입어난 치마저고리옷 입고 허영. 하르방 눈 어둡고 허난 뵈리  
지 못허영

“저 노일저대 행실머리 괴씸허연 물에 빠지와 불엇수다.”

“아이고, 잘헛저. 그년으로 망허연. 전배독신 다 팔아먹고 망헛저.”

허난 게난 배 탄 오는 거라. 아들들은 막 어멍 아방 올 때만 기다리단 보난 바  
다에 배돛대에 불 비추난 ‘오랏구나.’ 허연, 이젠 배 안에 눅렸어. 아들들이 다  
어멍 아방 업엉 눅리왔어.

‘우리 어멍 옷은 우리 어멍 옷인디 우리 어멍 아니 닳다.’ 허영, 아들들은 이상  
허게 생각헌디. 어멍을 앞이 세완

“집 좃앙 걸읍서.”

“아이고, 나 멀미헤 부난.”

[조사자] 시험했구나.

[제보자] 경허난. 어멍이 안 닳아 베니까

“집 앞이 상 걸읍서.”

“멀미허영 집 좃지 못허켜.”

“그동안에 못 좃으쿠가게? 영 이레 그릅서.”

허영 그레 가네

“어머니, 저 밥 헉서. 우리 먹게.”



허난

“아이고, 나 쓸항이 어디 신지 모르켜.”

“어멍, 그동안에 쓸항 신 디도 모르쿠가게. 요디 쓸항 싣우게.”

허연 밥을 짓는 것이 옛날엔 남박세기에 밥을 거령 먹을 때난, 큰아들 박새기, 셋아들 박새기 딱로딱로 잇인디, 큰아들 먹어난 박새기 족은아들 주고, 족은아들 먹어난 박새기 큰아들 주난 ‘우리 어멍 분명 아니로구나.’ 허영, 아들이 눈치로 아는 거라. 눈치로 아가난 ‘아들 일곱 성제 죽여 불어사 홀로구나.’ 허영, 하르방신디,

“배 아판 곧 죽어지쿠다. 배 아판 곧 죽어지쿠다.”

“게문 어떻허여.”

“어디 강 점해 봅서. 점해 봅서.”

허난 하르방은 눈 어둡고 지평이 짙은 두작두작 질로 돌앙 가는 동안에 노일 저대엔 흰 예펜은 바구리 썬에 셋담으로 넘어간 영 질 예염에 앓앓이난, 두작두작 몽둥이 짙은 가 가난

“어디 값우가?”

“우리 할망 아판에 문점허레 값우다.”

허난

“이래 읍서. 나가 굴아 안네저. 아들 일곱 성제 애 내영 먹어사 좋구다.”

허난

“아이고, 이거 생전 들어본디 엇인 소리. 이런 소릴 어떻 들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셋담으로 확 넘어 오란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간 뭇이렌 굴읍디가?”

허난

“들어본 디 엇인 소리 허난 아들 일곱 성제 애 내영 먹으면 좋덴.”

“아이고, 점은 훈 밧디 강 들으면 안 됩니다. 다른 디 또 강 들어읍서. 샷갓 썸 앓인 중이 질 예염에 잇우다. 그디 강 들어봅서. 두 밧디 강 들으면 허민 홀 수 엇우다.”

그디 강 두작두작 몽둥이 짙고 눈 어두운 하르방이 가당 보난 질 예염에 샷갓 썸 앓앗단

“아이고, 어디 가는 영감이우까?”

“우리집 아이 어멍 아판 문점허레 값우다.”

“아이고, 이래 읍서. 나 굴아 안네저. 아들 일곱 성제 잇구나마씨.”

“눈으로 본 듯이 잘 알았우다.”

“아들 일곱 성제 애 내어 먹어사 이 병은 좋구다.”

허난, 들어본 디 엇인 소리 두 반디 강 들어도 원 경 굴아. 집으로 두작두작

오는 동안엔 셋담으로 넘영 오란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그디 가난 뭐렌 골업디가?”

“그디 가도 아들 일곱 성제 애 내어 먹어사 좋덴 허영게.”

“할 수 엇이 아들 일곱 성제 다 죽으민 혼 배에 두 개씩 네 배 나민 으덜 성제 낫쿠다.”

이젠 칼을 골았이란 동네 할망은 불 담으레 왔어. 옛날은 성냥 엇으난 불 담아 당 후후 불어그네, 불 담으레 간

“남선비 뿔 허젠 칼 골았어?”

허난

“우리 아이 어멍 아팜 두 밧디 강 점 허난 아들 일곱 성제 애 내어 먹으민 좋켄 허연 칼 골았우다.”

허난, ‘이거 무슨 소리라.’ 허영 할망은 올레에 불도 아이 담앙 데껴두고 올레에 뛰어간 남선비 아들덜 일곱 성제 놀았이란

“아이고, 너네 아방 일곱 성제 다 죽이젠 칼 골았저. 돌으라”

허난 일곱 성제가 막 산더레 올르는데 막둥이가 영리헌 거난, 집이 간에

“아버지, 뿔허젠 칼 골았우가?”

허난

“느네 어멍 아팜 두 반디 강 점 허난 아들 일곱 성제 애 내어 먹으민 좋켄 허연 칼 골았저.”

허난

“아버지, 아들 일곱을 눈 어두운디 어멍 묻으쿠가, 그 칼을 날 줍서, 나가 강으네 성들 애 내어오고 날랑 아버지 손으로 죽어도 좋수다.”

허영 칼을 슬쩍 내어주난, 가전 산중더레 막 올른 거라.

일곱 성제가 가단 막 배고프고 조라왕 지치고 허난 테역밧디 노릇노릇 누웠어. 누웠인디 꿈에 선몽헤 준 거라. 백발 노인이 나왕

“너네 잠을 자지 말앙 부지런히 가당 보문 산토새기가 일곱 개 새끼 둘앙 내려오랴이메, 그 에밀랑 씨 전종으로 낚두고 새끼 여섯이랑 심어그네 애 내어오라 그네 어멍 맥영 느네랑 목숨 살라.”

허연, 가당 보난 새끼 여섯 둔 산툏이 내려오랴이란

“아이고, 느 에미랑 씨 전종허곡 새끼 여섯이랑 우리 도라. 우리 목숨 살아나켜” 새끼 여섯 애를 떼 내영 오랑

“어멍, 이거 먹영 살아납서.”

“성들랑 올레뻬이 곱아십서.”

죽은동생이 강 이제

“아이고, 넌 존샘도 좋다. 너 시믄 먹어지느냐? 늘랑 바깥더레 나가 불라.”

바깥디 나강 문구녕 탁 허게 터주안, 영 뵈려 보난 먹는 체만 체허연 자리 알  
레 물어 불어 두었어. 흠뻑 싯단

“어멍, 다 먹읍디가?”

“오, 다 먹었저.”

“게난 병은 어떻허우까?”

“하나만 더 먹으면 아주 좋을 거 다탔다.”

“게민 난 죽을 거난 어머니머리에 니 잡아뵈 죽으쿠다.”

허난 이제

“아이고, 중병 든 딴 니도 아이 잡나.”

“게건 자리나 치와뵈 죽으쿠다.”

“병 든 딴 자리도 아니 칩나.”

허난 확 허게 걸언 보난 이부자리 아래 문뵈 뵈뵈어. 뵈뵈 뵈두난

“형들 다 모다 읍서.”

허난, 죽이젠 모다 오난 이젠 듣는 것이 어디 둘을 디 엇이난 옛날에 화장실이  
도야지 질루곡 통시지. 통시 배숫간 아래로 강 머리로 목 졸란 죽엇주기. 남선비  
는 눈 어둑으난 올레에 도망치단 정주목에 간 발 걸령 박아정 죽고.

경허난 남선빈 올레 정주목신이 되고, 이제 측간에 강 목매영 죽으난 그 할망  
은 화장실 할망이 되난, 옛날 측간에 화장실에 배숫간에 돌은 조왕에 오민 동티  
가 난덴 헛주기.

게난 어멍은, 말자이 아들 일곱 성제가 어멍 죽은 디 오동나라 간 연뵈 디에  
요왕드리 뵈, ‘어멍 머리턱 올라옵서.’ 허영, 머리턱이 용올레기에 감아전 올라오  
난 ‘우리어멍 이 물에 죽은 게 분명하구나.’ 허영, ‘석 달 열흘 7물아 줍서.’ 허  
연 물 다 퍼뵈 보난, 어멍 뵈 살그랑헛어. 게난 그 뵈 좇어당 어멍 꾀 빌어다네  
번성꾀허연 살린 것이 그 어멍은 조왕할망이 되고.

노일저대엔 현 몽니 꾀인 할망은 화장실에 돌은 옛날에는 돌로 허영 배숫간  
하민 그디 둘을 조왕에 오민 동티나고 조왕에 돌이 화장실에 가민 동티나고. 경  
현덴 허고.

남선비는 정주목에 발 걸령 죽으난 주목대신이 뵈고, 큰할망은 조왕할망이 뵈  
고, 죽은할망은 측간 배숫간할망이 뵈엇어. 경허난 아들 일곱 성제는 청대장군,  
백대장군으로 동서남북에 좌정허고 죽은아들 영력허난 문전하르방이 된 거라.

- 핵심어: 남선비, 오동나라, 일곱 성제(일곱 형제), 노일저대, 애(간), 통시(변소), 조왕, 동티(동토, 動土), 측신, 문전하르방(문전신), 죽은아들(작은아들), 청대장군, 백대장군, 정주목신, 산토새기(산돼지), 백발노인, 정주목